

보름달보다 넉넉한
한기위보나세요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탐코리아협의회 동정>aT, ‘맛있는 웰빙 K-푸드’ 베트남 입맛 사로잡다.....	17
✓	<기업탐방>REMANn.....	18
✓	<법률>베트남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시 검토사항.....전현우 변호사	20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6탄.....엄진용 회계사	22
✓	<중재>프랜차이즈 분쟁 사례분석-K FOOD.....대한상사중재원	23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선라성>	26
	VIETNAM CEO INSIGHT 2024.....	32
✓	<이달의 보고서> 베트남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전망 2024 베트남 콘텐츠산업 변화 동향.....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3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8





이번엔 진짜, 지금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규제 강화, 전기차 인센티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 시장 여건 개선
- 시장진출 적기, 선제적인 현지 동향 모니터링 필요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 너무 많아서 문제인 베트남의 오토바이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나라'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도로와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교통부(MT)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전체 대수는 7,577만 대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했으니 인구당 오토바이 대수는 약 0.75대, 즉 베트남 사람 100명 중 75명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우선 오토바이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산하 환경오염통제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84만 5,340톤과 5,261톤에 달한다.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 아이큐에어(IQAir, 스위스)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6 $\mu\text{g}/\text{m}^3$ 로 134개국 중 대기 오염이 22번째로 심각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내연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 강화

베트남 정부 및 유관 기관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제36/2024/QH-15호의 4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유주는 국가기술표준(QCVN)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통과한 소유주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다만 미비한 배출가스 검사 세부 규정으로 인해 적용 시점이 현재 조정되었으며 시기는 미정이다. 비록 배출가스 검사 시행일이 연기됐으나 이는 조만간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오토바이 친화적 정책 추진

베트남은 2050년까지 도로용 차량의 100%를 전기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베트남 BSS C, 호찌민시 개발연구원(HIDS), 유엔개발계획(UNDP)은 호찌민시 거주자가 전기차량 구매 시 최대 2500만 동(약 1030 달러)을 12개월간 0%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우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베트남 교통부는 또한 △전기차량 조립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완제품 수입에 대한 수입세 면제 및 감면 △전기차량 구매 시 한 대당 1,000달러 지급 △충전소 개발에 투자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 토지 임대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장려책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일부 지원책은 아직 논의 중이거나 무산된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은 여전히 전기 이륜차 등 전기차량 도입 및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 충전소 인프라 현황

전기차량 소비자 및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소 인프라도 점차 갖춰지고 있다.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이자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빈패스트는 베트남 내 63개 성 및 중앙 직할시에 15만 개 이상의 충전 포트를 설치했으며, 충전소 간 평균 거리는 3.5km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빈그룹은 2024년 3월 18일 충전 인프라 시스템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전문 업체인 브이그린(V-Green)을 출범했다. 빈그룹은 향후 2년간 약 4억4000만 달러를 증액 투자해 새로운 충전소 건설 및 기존 충전 네트워크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전기차량 충전 솔루션 제공업체인 EVIDA는 베트남의 모든 브랜드의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기업 현황

현지 주요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 사례로는 빈패스트(VinFast), 페가(Pega), 에스페로 디테크(Espero Deteck) 등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는 혼다(Honda, 일본) 야데아(Yadea, 중국) 등이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잠재성은 이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다. 다만, 이전까지는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이차전지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선불리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에 본 기사에서 하노이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적기라고 판단,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다루었고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연기관 오토바이 포화 상태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 극심에 따른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대
- 배출가스 의무검사, 특정 지역 운행 금지 등 내연기관 오토바이 규제 강화에 따른 내연기관 오토바이 수요 감소 예상
- 내연기관 오토바이 규제책과 동시에 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추진
- 전기차 대표 기업 빈패스트의 나스닥 상장, 이와 더불어 관련 스타트업 성장 등 기존 시장 선도자의 글로벌화, 경쟁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

베트남은 현재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점차 자동차 또는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할 것이다. 이미 오토바이 문화가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의 전환과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 지하철 개통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은 요원한 상황이다. HSBC도 최근 발간한 ‘베트남 한눈에 보기: 전기차 이야기’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6년에는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 판매량이 현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연간 2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저한 현지 동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전기 오토바이 주요 부품,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 충전소 핵심 부품, 전력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이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베트남 정치사에 남을 2024년, 베트남 정치 체제 및 동향 분석

- 서열 2위, 3위, 5위 퇴진 이어 최근 권력서열 1위 총서기장 서거
-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올 상반기 경제 회복한 베트남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별세

2024년 7월 19일 오후 1시 38분.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서기장이 노환과 중병으로 '108 군 중앙병원(하노이)'에서 별세했다. 7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의 국장(國葬) 후 26일 오후 3시 하노이에 위치한 마이직(Mai Dich) 묘지에 안장됐다. 베트남 공산당은 총서기장 연임을 2회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고 응우옌 푸 쯡 서기장은 총서기장을 3연임해 베트남 건국 이후 역대 최장수 총서기장이었다. 또한,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이후 권력 서열 1위인 총서기장과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을 겸직한 지도자는 응우옌 푸 쯡 서기장이 유일하다. 재임 중에는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의 균형 외교 노선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 원칙을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라 불리우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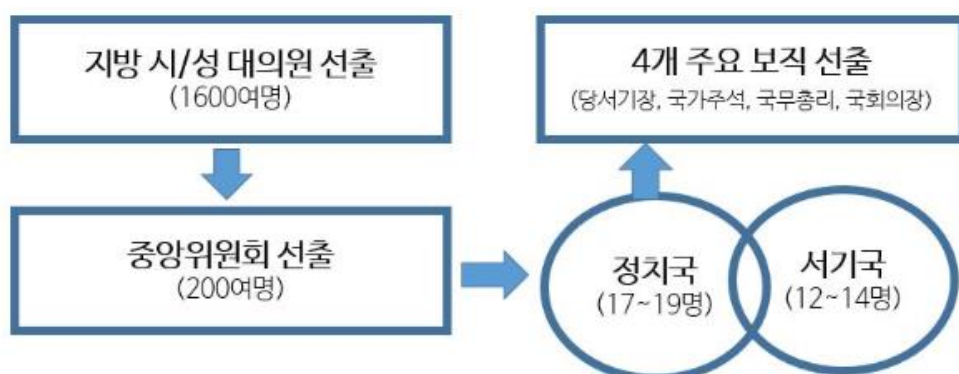
권력 서열 2위, 3위, 5위는 사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베트남에서는 국가 권력 서열 5위 내의 인물 중 3명이 사임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베트남의 부패 척결 캠페인인 한창인 상황에서 3명 모두 부정부패와 연루된 것으로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추측하고 있다.

베트남의 정치 체제 및 구조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의 정치 체제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이며, 공산당이 유일 정당인 국가다.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개혁·개방 정책이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경제 발전을 도모했으나, 여전히 베트남은 공산국가다.

<베트남의 주요 정치 인사 선출 방식>



이러한 일당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에서 선출된 국가 지도자격 주요 보직 4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지도체제이다. 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순의 서열로 구성된 이 집단지도체제는 흔히 ‘4개의 기둥(Four Pillars)’에 비유된다.

<2024년 7월 현재 기준 베트남의 ‘4개의 기둥’>

서열	직책	현재	기존	비고
1위	총서기장 (General Secretary)	공석	응우옌 푸 쯡 (Nguyen Phu Trong)	또 럼 국가주석이 권한 대행 (7. 19.)응우옌 푸 쯡 전 서기장 서거
2위	국가주석 (President)	또 럼 (To Lam)	보 반 트엉 (Vo Van Thuong)	(3. 20.)보 반 트엉 전 주석 사임 (5. 22.)또 럼 국가주석 취임
3위	총리 (Prime Minister)	팜 민 찐 (Pham Minh Chin)	좌동	-
4위	국회의장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쩐 타인 먼 (Tran Thanh Man)	브엉 딘 후에 (Vuong Dinh Hue)	(5. 2.)브엉 딘 후에 전 국회의장 사임 (5. 20.)쩐 타인 먼 국회의장 취임

공산당 총서기장은 공산당 당수에 상응하는 직책으로서 당 조직을 총괄 운영한다.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은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한다.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수장이다. 현재 베트남은 총서기장의 서거로 권력 서열 1위 자리가 공석이며, 이를 지난 5월 새로 부임한 또 럼 국가주석이 권한 대행과 맡고 있다. 찐 타인 먼 국회의장 또한 또 럼 주석과 함께 5월에 국회의장에 임명돼 취임 2개월 째를 맞고 있다.

‘불타는 용광로’의 명암.

반부패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은 부정부패 이미지가 강한 베트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제 통계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총 3067건의 부패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와 관련해 7,383명을 기소(유죄 판결 5605명, 고위직 처벌 1141명)했다.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베트남은 42점을 획득해 전년에 비해 10계단 상승한 세계 77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러한 반부패 운동의 역기능이 이례적인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정치 현상들을 통해 외신 및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패 척결 캠페인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난 보 반 트엉 전 주석은 역설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으며, 5월 하차한 브엉 딘 후에 전 의장은 차기 총서기장으로 유력시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강점인 ‘정치적 안정성’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된 부패 척결 운동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베트남의 반부패 캠페인의 또 다른 단면은 베트남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 문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및 기소되는 모습을 목격한 베트남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신변 안전 확보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자국민보다는 외국인들이 입게 된다.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 상담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의 주요 정치 지도자의 교체 이슈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에 두려움을 느껴 경직된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태도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최신 공식 통계치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③사회편

- 1인당 월평균 소득 28만원 - 낮은 소득 수준 고려한 가격 책정 필요
- 핸드폰 가입자수 1.2억 명, 인구 과밀화, 학생수 증가 등 인상적

지난 7월 1일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GSO)은 '2023년 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of 2023)'을 기관 홈페이지([링크](#))에 게재했다. 통계연감은 국가나 기관이 연간 단위로 발행하는 통계 자료집으로서,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포함하며, 정책 결정, 연구, 학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베트남에서도 매년 2분기 말에 통계총국(한국의 통계청과 거의 유사한 기능 수행)이 통계연감을 발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어와 영어가 병기돼 있다.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통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베트남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베트남과 관련된 주요 경제·사회 통계를 1) 인구, 2) 경제, 3) 사회 등 3편으로 나눠 분석하고 그 활용법을 제시한다. 이번 편에서는 사회 통계 지표를 다룬다.

※ '[최신 공식 통계치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 ①인구편](#)'을 클릭하면 1편으로 연결된다.

※ '[최신 공식 통계치를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 ②경제편](#)'을 클릭하면 2편으로 연결된다.

월평균 소득 28만 원, 점차 완화되고 있는 빈곤률

2023년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동으로 원화 환산 시 약 2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도시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소득(626만 동)은 농촌 지역(417만 동)의 약 1.5배였으나, 인구편 해외시장뉴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40%를 하회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 소득은 도시 수치보다는 인구가 더 많은 농촌 수치에 가까웠다. 한국의 경우 2024년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2만 원이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었으므로, 1인당 월평균 소득을 대략 227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단순 비교를 해 보면 현재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한국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의 약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연감에서 상기 통계 수치는 베트남의 전체 가구 소득을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가구 구성원(예컨대 군인, 미성년자, 노인 등)도 월 2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베트남 취업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709만 동으로 원화 환산 시 약 40만 원이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25%(약 8만 원) 급격히 증가한 점이 인상적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베트남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 및 지역별 구분 시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에 비해 월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진출 시 이러한 월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한 가격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회 구성원의 수를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계연감에 따르면 빈곤선이란 빈곤한 사람이나 가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1인당 평균 수입(또는 지출)이다. 소득 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통계총국은 통계연감에서 최저생활수준(Minimum living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핸드폰 가입자수, 낮은 인터넷 가입자수

통계연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PC를 보유한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도 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의 PC 보유 가구 비율은 28.3%로 전년과 동일했다. 도시 가구의 경우 PC 보유 비율이 43.9%에 달했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도 PC 보유 비율이 48.6%에 달했다. 반면, 농촌 가구의 경우 18.5%, 소득 1분위(하위 20%) 중에서는 단 6.3%만이 PC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핸드폰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도농 간 또는 소득분위별 PC 보유 여부의 차이만으로 베트남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베트남의 핸드폰 가입자 수는 인구수(2023년 기준 1억30만 명)를 넘는 1억20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 가입을 고려하더라도 남녀노소 핸드폰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치다. 반면, 인터넷 가입자 수는 비록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23년 기준 2300만 명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양상은 베트남의 낮은 PC 보유 비율과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서비스 산업 관련 통계

관광업은 베트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다. 비록 우리 기업과의 연관성은 적지만, 베트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광업 관련 통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해 해당 기간 전후 비교가 필수적이다. 베트남의 경우 2023년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치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코로나19 기간 이후 관광업이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베트남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한국인으로 2023년 한 해에만 약 360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 특히 비대면 교육 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업은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촉망받는 산업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계연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 통계는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타 서비스 산업 관련 통계

본 편을 마지막으로, 총 세 편에 걸쳐 베트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주요 통계치들을 통계연감이라는 자료를 통해 알아봤다. 1259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인 만큼, 더 세부적인 내용은 통계연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임에도 오타자 및 오류, 현행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자료 활용 시 유의가 필요하다. 이번 기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통계들은 성별 간, 도농 간, 지역별 격차가 유의미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전략 수립 시 이 점을 유념해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나 시장 동향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외시장뉴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상품명'의 조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수요 동향, 경쟁 동향, 유통 구조, 인증제도 등 다양한 항목 중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해외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항목별 시장조사' 서비스를 KOTRA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오쿠에 어워즈 2024’로 보는 베트남 IT 기업 트렌드

- 베트남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는 수상 기업 리스트
- 2024 사오쿠에 어워즈 TOP 10, 핀테크 분야에서 두 기업 선정

2024년 사오쿠에 어워즈 TOP 10

사오쿠에 어워즈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소프트웨어·IT서비스협회(VINASA)가 공동 주관해 베트남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사오쿠에 어워즈는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며, 이를 통해 수상 기업과 개인은 베트남 시장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2024년 사오쿠에 어워즈’에서는 총 117개 기업이 169개의 상을 수여받았다. 주관 기관에 따르면, 169개 수상작의 2023년 총매출이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기준 베트남 전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매출의 약 30%를 차지한 수준이다. 2024년 사오쿠에 어워즈에서 수상한 기업은 정부와 행정 및 공공 부문, 기업 경영, 산업 생산, 농업 및 식품 가공, 자동차, 디지털 뱅크, 핀테크, 소매 및 유통,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2024년 사오쿠에 어워즈(Sao Khue Award) TOP 10 수상기업 리스트>

제품 및 사업명	단위	분야	그룹
MES-X 생산관리 시스템	VTI 솔루션	산업 생산	경제-산업
농업 생산 연계 시스템	Loc Troi Group JSC	농업, 식품 가공	경제-산업
결제 허브 시스템-중앙 집중식 결제 거래 처리 센터	베트남 투자 및 개발을 위한 합작상업은행	디지털 뱅킹	시장-소비자
MaaZ- 자동차용 종합 기술 솔루션	FPT Software Co.,LTD	자동차	경제-산업
MOMO	Online Mobile Services JSC	핀테크	시장-소비자
Thua Thien Hue 지방의 디지털 작업 플랫폼	Thua Thien Hue 지방의 스마트 도시 모니터링 및 운영 센터	관리 및 운영	정부, 행정, 공공
FPT Play 애플리케이션	FPT Telecommunications JSC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소비자
디지털 생산 및 사업 운영 센터	Rang Dong Thermos Light Bulb JSC	경영	경영
VinShop 애플리케이션	One Mount JSC	소매 및 유통	시장-소비자
VNPAY Taxi	베트남 결제 솔루션 합작회사	핀테크	시장-소비자

수상기업 주요 사례

1) 핀테크 분야, ‘모모(MOMO)’의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모모(MOMO)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서, 모바일 결제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 QR결제, 충전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후불 지갑, 간편대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70개 이상

의 은행, 금융 및 보험 회사의 금융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는 베트남 내 약 310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1100만 명이 늘어나며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모와 같은 베트남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하며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도 이러한 모바일 결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결정문 2345/QD-NHNN을 승인했다. 해당 결정문은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 결제로 2000만 동 이상 거래 시 생체인식 인증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모모의 전자 지갑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지능형 의사 결정 시스템(Intelligent Decisioning System), 사기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과 같은 현대적 기술들을 활용해 신용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2024년 사오쿠에 어워즈 TOP 10에 선정됐다. 매일 모모를 사용한다고 밝힌 현지 소비자 A 씨는 "모모를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인 그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마트나 음식점에서도 카드나 지갑없이도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모모의 편리함을 강조했다. 또한, A 씨는 "모모의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한 보안 방식 또한 기존 은행 앱들의 복잡한 보안 방식보다 간단하여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2) 자동차 분야, FPT의 자동차용 종합 기술 솔루션 ‘마즈(MaaZ)’

마즈(MaaZ)는 베트남 최대의 ICT 기업인 FPT 소프트웨어가 출시한 자동차 솔루션 스택이다. FPT 그룹은 1999년에 설립됐으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연구·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ICT를 적용하고, 개인 및 기업에 이익을 창출하며, 국가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베트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 부문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마즈는 칩 제조업체, 자동차 공급업체, 자동차 OEM 업체 등을 위해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 표준 규정을 준수하는 자동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스마트 자동차 기술, 차량 디지털화,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등과 IT 제품 및 서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동차 IT 솔루션 제품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트너사들이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기 자동차용 스마트 충전 솔루션, 자동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파트너사들은 기성 플랫폼, 툴, 서비스 등이 통합된 포괄적인 솔루션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사오쿠에 어워즈는 베트남의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인정하며,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수상 기업들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음을 증명하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IT 산업의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는 사오쿠에 어워즈는 앞으로도 베트남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상반기 對베트남 FDI 동향

- 2024년 상반기 FDI 투자 건수, 최근 5개년 상반기 중 최다치
- 한국의 對베트남 FDI 비중은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모두 9%

대(對)베트남 FDI 국가별 동향

2024년 상반기 대(對)베트남 투자국 1위는 싱가포르로 총투자액 가운데 3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투자액은 총 55억7972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4년 상반기 14억1163만 달러를 투자하며 4위를 달성했다. 한국의 대베트남 FDI 비중은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 모두 9%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상반기 대베트남 투자국 중 싱가포르의 투자 비중이 3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VSIP)의 지속적인 투자 유입 이외에도, 캐피탈 랜드 그룹(Capital Land Group)의 6억62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베트남 남부의 박리에우(Bac Lieu) 및 롱안(Long An)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에 싱가포르의 대규모 FDI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1988~2023년 누계 기준 대베트남 FDI 건수는 4만544건, 투자 신고(등록) 금액은 약 48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1988~2024년 누계 기준, 투자국 1위는 한국으로 투자액은 총 874억 달러에 달하며 총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싱가포르(801억 달러), 3위는 일본(76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對)베트남 FDI 산업별 동향

베트남의 FDI는 주로 제조와 가공업에 집중됐다. 1988~2024년 투자액 누계를 보면 투자액의 약 60.7%가 제조·가공업에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부동산(14.6%), 전력 생산(8.4%) 등이 뒤따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의 대베트남 산업별 투자 동향 또한 제조·가공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 제조 기업들의 공장 이전 등에 힘입어 2024년 상반기 제조·가공업의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3% 증가했다. 이외 2024년 상반기 부동산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했다.

시사점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 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1일부터 베트남의 토지법, 부동산법, 주택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며 부동산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 투자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산업단지 개발,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 북-남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와 같은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며 관련 분야 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해 물류 대란과 더불어 8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확대됨으로써 수출 일정 지연이나 해상운임 급등과 같은 장애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경쟁 심화는 베트남의 FDI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청소용 세제 시장동향

- 베트남의 세제류 유통의 88.1%는 오프라인 소매
- 한국은 베트남의 세제류 수입 점유율 2위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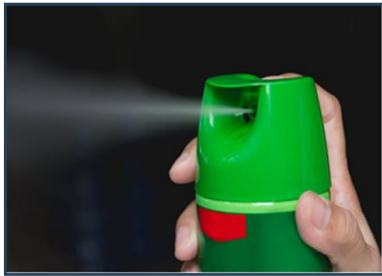
베트남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청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세제 시장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비누 및 세제 생산량은 155만 톤에 이르렀으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관련 시장은 연간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청소용 세제 품목을 포함한 베트남의 홈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 6.2% 상승하여 19억11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홈케어 시장은 표백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실 세제와 같은 다양한 청소용 세제 품목들을 포함한다. 2023년 기준, 홈케어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이며 홈케어 시장의 약 56%를 차지한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천연 성분의 세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쟁동향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 청소용 세제 소매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 브랜드는 오모(Omo)이다. 오모는 2023년 기준 16.3%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선라이트(Sunlight)가 1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오모는 강력한 세정기능과 미백효과를 지닌 '오모 매트릭(OMO Matic)' 브랜드의 다양한 세탁세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며 현지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2위인 선라이트는 레몬그라스와 레몬 같은 전통적인 향이 나는 주방세제 제품들을 홍보하며, 저렴한 가격대와 함께 모든 연령층의 베트남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함을 통해 제품을 어필하고 있다. 현지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과 신제품 소개 영상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세제 리뷰와 비교 영상들도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한국 세제를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사점

청소 세제류 제품의 경우, 안전과 품질에 민감한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뛰어난 효능과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제품의 기능성과 효과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실시간 방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홍보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세제류에 대해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에 성분과 라벨링 규정 등 여러 법적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현지 법률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신 법률 규정들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살충제 시장동향

- Dengue fever, Malaria risk increases, mosquito repellent market grows
- Foreign companies hold 93.8% market share, thorough market research required

시장동향

베트남의 가정용 살충제 시장 규모는 해충 증식에 유리한 기후적 특성, Dengue fever에 대한 문제 인식의 확산,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uromonitor의 '베트남의 가정용 살충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살충제 시장은 2009년 대비 2023년 5.5배 증가한 1억7868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8년까지 9%의 연평균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2억7622만 달러 시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베트남 사람들의 안전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Dengue fever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Dengue fever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다. 기존에는 Dengue fever가 주로 농촌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에서도 발병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경쟁동향

베트남 보건환경관리국(VIHEMA)의 등록 상품 명단에 따르면 2023년 10월 31일 기준 베트남에 정식 유통 등록된 살충제 제품은 총 1,867개이다. 베트남 살충제 시장의 경우 현지 제조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요 제품으로는 A.V.A.L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해외 기업으로는 어스코퍼레이션(일본), 푸마킬라(일본), 모스플라이 인터내셔널(말레이시아), SC 존슨(미국) 등이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네 개의 제조사는 93.8%의 점유율로 베트남 가정용 살충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 가정용 살충제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29.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푸마킬라의 점보(Jumbo)이다. 점보는 스프레이형 살충제 뿐 만 아니라 모기향, 모기 기피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점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니 게임과 챌린지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곤충 매개 질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은 산림 면적이 넓은 열대 국가로, 각종 해충 번식에 유리하다는 기후적 특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곤충 매개 질병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베트남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살충제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살충제 시장의 90% 이상을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출 시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적은 제형의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베트남 동물 의약품 시장 현황과 전망

- 축산물 산업이 견인하는 베트남 동물 의약품 시장
- 현지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의약품 공략 등 선택과 집중 필요

베트남 동물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베트남 동물 의약품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Mo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베트남 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4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연평균 7.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 의약품의 등록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베트남에 등록된 동물 의약품의 수는 2020년 1만2501개에서 2024년 3월 1만8620개로 49% 늘어 3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 다만 등록된 동물 의약품 중 70% 이상은 베트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등 등록 건수는 현지 생산 의약품이 수입 의약품을 앞서고 있다.

동물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미흡

다만 상당수의 현지 축산 농가들이 동물 의약품과 백신을 임의로 구매하고 있어 우려도 크다. 한 농가 관계자는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동물 의약품 판매점에서 가게 주인이 약을 주고 효과가 없으면 다시 약을 바꿔 주는 식이다”라며 “어떤 약인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지,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 의약품과 백신이 입소문이나 일부 업소의 조언 등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현지 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이 베트남 농가의 동물 의약품 사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현지 생산 동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총 90개의 동물 의약품 및 백신 생산시설이 있다. 동물 백신의 경우 10개의 생산시설에서 매년 새로운 백신이 연구, 생산 및 유통되며 현재 총 200종의 백신이 등록돼 있다. 베트남은 현재 약 2,000종의 동물 의약품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업체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의약품 우수 제조 관리 인증(GMP-WHO)을 받는 등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 의약품 원료는 상당수 수입에 의존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반복되는 질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베트남 동물 의약품 산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 독감 등 가축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 되는 것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우리 기업도 현지 생산이 어렵거나 부족한 의약품이나 국제 기준 등을 충족한 고품질의 검증받은 제품으로 진출하는 등 전략적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베트남, 세금채납 출국금지 대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추진

베트남 정부는 세금 채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 대상에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 등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중임.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법인 대표 개인에 한해 적용되나, 조치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임. 재정부에 따르면, 베트남 전국의 약 550만 개의 운영 사업가구 중 350만 개에 세금코드 발급했음. 세무총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출국 금지 납세의무 미이행자는 약 1만 6,900명이며, 이들의 채납액은 24조 1,000억 동에 달함. 세무당국은 제3자 추심, 자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통해 채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재 정부는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

[Inside Vina 8.26]

▶ 베트남, 옥상태양광 발전용량 증가 예정...부총리 지시

베트남 부총리는 옥상태양광 발전용량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030년까지 2.6GW로 규정된 비발전사업자의 옥상태양광 쿼터가 확대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부총리는 공상부에 '자가생산·소비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공상부는 관련 정책을 검토 중임. 현재 북부 지역의 옥상태양광 발전용량은 전체의 2.5%에 불과하지만, 최대 25~30%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함. 부총리는 북부지역 발전용량을 최대 7GW까지 조정하고, 호치민시 인근 지역의 발전용량도 재산정할 것을 지시했음. 관계기관들은 국가전력망과 민간 발전시설 연결에 따른 전력 부하와 시스템 안정성을 검토한 후, 국가전력계획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부총리는 민간 옥상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후 관리 방식 도입 등을 지시함.

[Inside Vina 8.19]

▶ 베트남, 2분기 주택 거래 감소...2.6만 건 전년동기비 12% 감소

2024년 2분기, 베트남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 하노이와 호치민 등 주요 도시의 아파트 분양 및 매매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과의 격차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신용 성장률도 지난 수년간 상반기 수준을 크게 밑돌았음. 반면, 토지 거래는 연초 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관련 3개 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부동산 중개인협회 회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 건설부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향후 몇 년간 이러한 주택 시장 약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Inside Vina 8.19]

▶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중국 국민방문...18~20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또 럽 (To Lam) 이 8 월 18 일부터 20 일 사흘 간 중국 국 빈을 방문할 예정. 베트남과 중국은 1991 년 국교 정상화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함. 2023 년 12 월 응웬 푸 쩡 (Nguyen Phu Trong) 전 서 기장의 중국 방문 당시 양국은 지속적인 발전 및 양국 이익을 위해 미래 운명 공동체 구축에 합의함. 2024 년 양국 교역액은 1,719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 년 상반기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한 945 억 달러를 기록. 2023 년 중국의 대베트남 FDI(외국

인직접투자) 총등록자본금 44 억 7,000 만 달러 , 2024 년 상반기 투자액은 12 억 9,000 만 달러로 각각 4 위 , 5 위의 투자국 위치 차지 . 한편 , 2023 년 베트남 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175 만 명으로 한국에 이어 2 위 를 차지함 .

[Inside Vina 8.16]

▶ 베트남 대외무역 호조...7월 교역액 사상 처음 700억 달러 돌파

해관총국에 따르면 베트남 2024 년 7 월 교역액이 전월대비 9.4% 증가한 701 억 1,000 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700 억 달러를 상회함 . 수출도 7.7% 증가한 362 억 3,000 만 달러 , 수입은 11.2% 증가한 338 억 8,000 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23 억 5,000 만 달러 흑자를 기록 . 2024 년 1 월부터 7 월까지 교역액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4,404 억 5,000 만 달러를 기록함 . 같은 기간 수출은 2,274 억 9,000 만 달러, 수입은 2,129 억 6,000 만 달러로 각각 16%, 18.5% 증가해 무역 흑자 145 억 3,000 만 달러 기록 .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30% 로 컴퓨터 , 전자제품 및 예비부품이 1 위를 차지함 . 플라스틱이 29.9%, 목재 및 목제품이 23.3%,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9% 로 뒤를 이으며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 .

[Inside Vina 8.14]

▶ 아파트 외국인소유한도 최고 30%...주택법 시행령

베트남은 8월 1일부터 외국인 아파트 소유한도를 최고 30%로 규정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 .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동별 최대 30% 소유 가능함 . 외국인 소유 단독주택은 특정 지역 내 하나의 주거 단지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250호로 제한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 합산 최대 250호로 제한함, 외국인이 소유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최소 3개월 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시 50년까지 연장함 . 건설부에 따르면 베트남교민을 포함한 외국인 주택 수요자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부동산서비스업체 닷산서비스((Dat Xanh Services 증권코드 DXS)에 따르면 해외 베트남교민은 중급 이상의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호치민시 인근 지방은 자산 축적 용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Inside Vina 8.6]

▶ 베트남, 룡탄국제공항 건설사업 '순항'...2026년 9월 개항목표

베트남의 룡탄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 1 단계 사업은 2026 년 9 월 2 일 개항을 목표 . 공항 시행사인 베트남공항공사는 터미널동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설명 . 터미널 내부 공사는 연내 완료될 계획이며 , 이후 설비 설치와 외부 공사를 진행할 예정 . 룡탄국제공항은 4F 급 국제공항으로 , 총 사업비 133 억 8,272 만 달러가 투입되며 , 최종 완공 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가 각각 4 개씩 갖춰질 예정임 . 1 단계 사업에서는 연간 2,500 만 명의 여객과 120 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 향후 2 단계와 3 단계를 통해 처리량이 각각 5,000 만 명과 1 억명으로 확대될 전망

[Inside Vina 8.9]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Green Hydrogen Production Factory Cluster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관명 : THDV Green Development Investment Consulting JSC
프로젝트	■ 현장위치 : Mong Cai City, Quang Ninh Province, Vietnam ■ 규모 : USD 200-250 million ■ 프로젝트 관련일정 ➢ Preparing F/S report: Q2/2024 ➢ Bidding for investor: Q2/2025 ➢ Construction: Q2-3/2025 ➢ COD: 2029 ■ 세부내용: The cluster is located in the area of 300 ha divided into 5 components: ➢ Invest and operate a renewable energy plant using the latest and most modern technology, which is 220 MW Green Energy Tower (GET) and 40 MW Eco Nano Solar Power. The total green electricity output generated is 2 billion kWh/year. Plant (1) provides green electricity to (2), (3) and (6).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self-use electricity with a capacity of 40 MW for the GET plant itself with a total output of 300,000,000 kWh/year. ➢ Invest and operate a water electrolysis plant to produce green hydrogen gas (green H₂) and green oxygen gas (green O₂). This plant uses 100% renewable energy provided by plant (1). This plant can produce 40,000 tons of green H₂/year and 320,000 tons of O₂/year. ➢ Invest in a production plant with the capacity of 480,000 m³/year to provide clean water for water electrolysis plant no. (2),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clean water for the entire project and a group of local residents directly related to the project ➢ Invest in green hydrogen and green oxygen warehouse systems. Green H₂ and green O₂ gas products produced by plant (2) are stored in the internal gas warehouse system. ➢ Invest in a system of pumping stations and gas pipelines with the capacity of 8,470 kW to pump green hydrogen and green oxygen to customers' general warehouses for export purposes.



aT, ‘맛있는 웰빙 K-푸드’ 베트남 입맛 사로잡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4 베트남 식음료박람회(Vietfood & Beverage 2024)’에 참가해 K-푸드의 차별화된 맛과 건강한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베트남 식음료박람회는 호치민에서 열리는 식음료 분야 최대 규모 박람회로, 베트남 식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박람회장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폴란드 등 국가관과 1000여 수출업체가 참가해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K-푸드 잠재 소비자를 보유한 국가로, 올해 7월 말까지 대베트남 K-푸드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3억6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 음료류 38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14.4% ↑) ▲ 과자류 1300만 달러(20.0% ↑) 등이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베트남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우수 K-푸드 수출업체 28개사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통합한국관에서는 포도, 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부터 쌀 음료,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과 홍삼, 건강기능식품, 주류, 음료 등 베트남 현지인 입맛 공략을 위해 다양한 K-푸드를 두루 선보였다.

통합한국관에서는 김밥, 라볶이 등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스트리트 푸드 시연·시식 행사를 진행해 바이어와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Banh Mi)’에 한국의 건강 발효식품 김치를 넣은 ‘김치 반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현지인 입맛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 응우옌 후 키엠(Nguyễn Hữu Khiêm) 씨는 “베트남도 웰빙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어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알려진 한국 식음료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맛있고 건강한 K-푸드를 두루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고, 매년 한국관을 찾을 예정”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통합한국관 참가 수출업체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 베트남 주요 바이어 80여 개사를 초청해 1:1 매칭 상담회를 주선했던 결과 총 2480만달러의 상담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은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에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기회의 땅”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 수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총동원해 우리 수출업체들의 베트남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970>)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TAD서비스 선도기업, 주식회사 리맨

리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리맨은 한 마디로 ‘고객이 보유한 IT자산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리맨은 함부로 버려졌던 중고 디지털제품을 매입해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자원절감 효과와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경영 트렌드에 맞게 기업에서 나오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탄소감축 방안과 측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불용IT자산 매각 대행 및 데이터 보안폐기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단위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리맨이 최초로 도입하여 정착시킨 사업입니다. 오래되고 고장나서 못 쓰는 IT자산이 아무렇게나 버려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종합처리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IT 등 데이터 보안이 특히 중요한 기업에서 쓸 수 없는 IT자산을 수거하고, 데이터 삭제, 친환경 폐기, 사회적공헌, 재판매 등 처음보다 더 높은 가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면, ITAD서비스, IT솔루션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ITAD(IT Asset Disposition)서비스를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서도 불용IT자산에 있는 금전적가치와 보안유출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고객들은 주로 한국 및 글로벌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시장이 한정적입니다. 이를 베트남 로컬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만 기업시스템과 연결된터라 쉽지 않습니다. IT솔루션으로는 유지관리 및 스마트공장을 위한 산업용 키오스크, 일반 업무용 PC 납품 등이 있습니다. 단순 장비의 도입의 경우 단가경쟁으로는 쉽지 않지만, PC 등의 유지관리 문제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겪은 고객들은 결과적으로 장비도입과 유지관리비용의 총비용을 비교하고 요즘 들어 저희 솔루션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베트남 기업들은 ITAD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요도 적습니다. 하지만, 글로벌대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1안) 신규장비의 도입과 기존 불용 장비의 판매대행,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안데이터 폐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각 단계마다의 외부업체와의 계약 및 소통과 문제발생시 해결에 대한 대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해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외부업체 간 책임을 떠넘기거나 담당자 교체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2안) 모니터 크기에 본체 기능이 포함된 일체형 PC를 베트남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여 개인 및 기업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체형 PC의 가장 큰 위협요소가 열 관리인데, 더운 지방인만큼 베트남 기준에서의 일체형 PC의 열 관리는 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리맨이 그간 유지보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법무 및 회계 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업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달라 집니다. 또한 업종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가 가능한지도 선행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복수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법무/세무적 위협요소를 확인 하시는게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시 검토사항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미스채권회수 분쟁에 관하여

Covid-19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채권 채무와 관련한 여러가지 분쟁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상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 방법에 관해 다양한 문의가 있어,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 채권회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계약상 채무의 이행 –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의 지급 –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쌍무계약상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상대방의 대항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베트남 내 소송 진행시 고려 사항

대금지급 청구와 관련한 베트남 내 일반 상거래에서 법적 절차 검토를 요하는 채무불이행의 발생은 매우 명확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물품의 하자 발생 등이 상호간에 주장되기도 하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상거래에서 이러한 사안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협의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인

베트남에서 채권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및 책임재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경우, 법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 및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지 확인

계약서 상 해당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법원간 이송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해야 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또한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기에 중재심판소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법무부 등록 중재원이 아닌 해외 뉴욕 협약 체결국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베트남 영내 집행 절차 전 베트남 법원의 해외 중재 판정 집행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적인 재판절차 및 재판 비용에 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재판 증거 검토

베트남 법원은 분쟁의 내용만큼 형식의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같은 경우 한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서명권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해당 계약에 대한 위임장이 정확히 존재하는지, 공증을 요하는 거래에 공증이 이루어 졌는지, 상호 회의를 하였다면, 회의에 참석한 자가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회의록이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 등 형식적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단분양과 같은 공단과 사용권을 계약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 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부 시행규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6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 행되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각 세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측면

법인세의 경우 여타 다른 세목들과 비교해서 제법 그 내용이나 복잡성이 있는 세목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더욱 세심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데요. 법인세 과세 즉 세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법인세 인센티브’입니다. 과거 수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외국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찾는 주된 이유 중에 분명히 법인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세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대세율’의 적용과 ‘법인세의 면제 또는 감면기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베트남 뿐 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 특히, 저개발국가 내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법령 및 정책적인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효과로서 작용하는 것이 저렴한 인건비와 법인세 인센티브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무기로서 지난 십 수년 넘게 수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법인들이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안타까운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뿐 만 아니라 여러 법령들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적용을 하는 과세당국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법인들 역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여러 저개발국가들에 대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즉, 돈이면 안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 라는 방식의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법령과 절차, 체계 등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베트남에서는 안되는지 차이점에 대한 몰지각과 오히려 타 국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베트남 법인의 관리를 방해하고 엉뚱하게 진행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지인 경리직원에게 대한 과도한 신뢰와 의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법인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많은 법규정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역 직원을 통해 경리장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 역시 여러 법인들에게서 목격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센티브의 경우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법령 법령의 해석이 다소 다르게 도출된다 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투자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해석/처분하는 과세당국의 행태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투자자들의 신규진출 및 추가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센티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인세 납부액의 경중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사항 가운데 하나이므로 법령 자체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예규나 판례와 같은 수많은 실제 사례를 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세무조사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주로 지적되는 사항은 우선 인센티브 적용시점의 조정입니다. 많은 법인에서 법인세 인센티브가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바로 적용 시작이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Total Taxable Income'이라고 규정에서는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식 기준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인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또는 후)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상 표시되는 이익 기준과는 다르며 법인세 신고서식에 표시되는 소득기준 중 하나이며 역시 법인세 신고서에 드러나는 과세표준과도 다른 이익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세무조사 대상 중 하나인 법인세 측면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이번호에 이어서 법인세 세무조사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분석 _ K FOOD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앞다투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억명에 가까운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 한류열풍 등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최우선 해외진출국으로 꼽는 국가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또는 서로 다른 가맹점 간, 가맹계약의 조건, 가맹사업의 이행,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평판, 수익성, 성장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와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잘못된 의사소통 또는 의사소통의 부족, 그리고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동남아진출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 : 동남아시아 **국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실질적 대표는 한국인)
- 피신청인 : 한국에서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및 관리하는 법인

2) 거래체결 경위

- 20** .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 음식점의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 또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독점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의 마스터 권한을 신청인에 부여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료, 보증금, 가맹비 및 로열티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체결

2. 분쟁의 발생

- 신청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와 현지 한인 교포인 B는 201*년 공동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 50%씩 부담하며, 지분 및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수익을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 A와 B는 위 약정에 따라, 직영점인 C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몇 개월 이후 새로운 법인인 D회사를 새로이 설립함
- 두 법인의 지분을 A에게 25%, A의 부인(신청인 대표자)에게 51%, B에게 24%의 비율로 배정하고, A의 부인과 B를 공동대표자로 등록
- 신청인 측에서는 **국 내 1호점(신청인 측 직영)을 개점하고 새로운 법인 명의로 순차적으로 2호점 및 3호점의 프랜차이즈 가계약 및 개점도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실행행위를 역시 A와 B가 수행 / 이후 신청인이 아닌 A와 A 와이프 그리고 C가 새운 법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1년 후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측의 이 사건 계약상 양도 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
-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내용증명 상 해지통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인이 피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다.
- 피신청인은 유사 상표를 가진 새로운 법인과 새로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3.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신청 외 새로운 법인들에게 승계하는 것을 사전 양해 및 사후 승낙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계약의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경업금지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무효확인 및 이 사건 계약해지부터 신청인의 권리 회복 시점까지의 손해를, 예비적으로 위법,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이 사건 계약해지부터 이 사건 계약종료일인 향후 몇 년까지 손해를 청구

4.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신청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들로 해지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 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로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가계약 상태였던 2호점의 초기 가맹금 및 감리비, 3호점의 초기 가맹금, 감리비 및 정기로열티 상당을 청구

다음 호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쟁점과 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외에도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선라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14,108.9km² - 인구: 1,317,982명	도시거주 비율: 14.1%
지정학적 위치	- 선라성은 서북부의 중심에 위치하며 국방, 안보, 서북경제회랑 지역과의 경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추고 있음. 선라성의 행정 중심지는 하노이 수도 중심에서 약 302km 떨어진 선라시임. - 선라성은 북쪽으로는 옌바이(Yen Bai)성과 라이자우(Lai Chau)성, 동쪽으로는 푸터(Phu Tho)성 및 호아빈(Hoa Binh)성, 서쪽으로는 디엔비엔(Dien Bien)성, 남쪽으로는 타잉호아(Thanh Hoa)성, 라오스와 인접해 있음.	
접근성	- 도로: 10개의 국도(4G, 6번, 6B, 6C, 12번, 32B, 37번, 43번, 279번, 279D) - 수로: 다강(Song Da)이 선라성을 관통하며, 다혹(Ta Hoc) 항구가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전년대비 GDP 성장률: 0.75%/ 성 1인당 GDP: US 2,056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3년)	- 총 수출액: US 186.8백만 달러 / 총 수입액: US 13백만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1.31%), 서비스업(6.62%), 농수산업(5.48%)	
산업구조('23년)	공업/건설업 27%, 서비스업 41.6%, 농수산업 24.5%	
노무여건('23년)	- 노동연령 인구 비율: 48.6%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1%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6%	
최저임금('24년)	*계약상 최저 임금에 관한 정부의 제74/2024/ND-CP 의결서(2024년 7월 1일) 따름: VND3,450,000= US138 달러/월(4급지)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 선라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7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53.6백만 달러 (한국투자) 3개 프로젝트에 걸쳐 8.51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은 성에 투자한 5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2위 규모	

투자환경



선라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선라성의 도로 교통 시스템은 총 9,738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국도 10개, 성도 19개, 현도 134개, 도시도로 324개, 마을도로 1,481개, 특수도로 53개가 있음.
- 선라성 인민위원회는 국무총리가 호아빈-목자우(Hoa Binh - Moc Chau)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음. 그중 선라성을 관통하는 구간이 32.3km임. 현재 선라성 인민위원회는 투자 준비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25년 착공, 2028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또한 선라성은 약 105km 길이의 목자우(Moc Chau)현 - 선라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투자 준비 작업을 고려하고 지시하도록 교통부에 보고하고 제안하였음.

(수로)

- 현재 선라성에는 다강(Da River)에 1개의 국가 내륙 수로가 있으며 길이는 234km임(그중 호아빈 수력 저수지의 길이는 160km, 선라 수력 저수지의 길이는 74km임). 마강(Ma River)에는 수로 노선이 개설되지 않았음.

(항공)

- 선라성에는 1978년 - 1979년 기간 동안 운영한 나산(Na San)공항이 2004년에 운영을 중단하였음. 총리가 승인한 제648/QĐ-TTg의결서(2023.06.07)에 따르면 이 공항은 2050년 비전과 2021~2030년 기간 동안 국가 공항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나산공항은 2030년에는 연간 여객 100만 명, 2050년에는 연간 여객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C급 규모의 국내 공항으로 계획됨.

(항만)

- 현재 성에서는 15개의 내륙 수로 항구 중 4개를 건설에 투자하였음(계획대로 27% 도달). 그중 다하(Ta Ha)와 반켓(Ban Ket) 2개 항구가 운영 중이며, 파원(Pa Uon) 항구는 최근 건설을 완료했으며 여객 부두 기준을 충족하였음.

➤ 관광

- 선라성은 흥미로운 동굴 시스템, 장엄한 폭포, 수력 발전 호수, 뜨거운 광천수 광산, 시원한 기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이점을 가지고 있음. 현재 선라성에는 국립 특별 유적지 2개, 국립 유적지 16개, 성급 유적지 46개, 미분류 유적지 32개 등 총 96개 유적지가 있음. 그중 선라감옥, 레 타이동(Le Thai Tong) 왕의 비문, 목리(Moc Ly) 요새, 투언자우(Thuan Chau) 깃발 타워, 다바이(Ta Vai) 다리, 박쥐 동굴 등은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임.
- 인문학적 관광자원 측면에서 선라성은 오랫동안 12개 민족이 거주해 온 땅이며, 각 민족은 고유하고 유사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많은 민족 마을에는 여전히 많은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남아 있으며, 이는 가치 있는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창출하기 위한 특별한 인문학적 관광자원으로 간주되어 있음. 많은 민족 마을도 기아 퇴치 및 빈곤 감소와 관련된 지역사회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음. 또는 선라성의 민족들은 관광객들에게 맛있고 독특하며 매력적인 요리, 재미있는 민속놀이, 다양한 민속춤, 전형적인 많은 축제가 있음.
- 지리적 위치와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선라성은 매력적인 자연 및 인적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관광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상품을 창출할 수 있음. 특히, 목자우(Moc Chau) 관광 지역은 2024년 4월 22일자 제1077/QD-BVHTTDL 의결서에 따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 관광 지역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에 목자우(Moc Chau)현은 World Travel Awards 기구에서 '세계 최고의 지역적 자연 목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음.



나카(Na Kha) 매화계곡(목자우 현)



앙마을(Ang Village) 소나무숲



다이엠(Dai Yem) 폭포



항따우(Hang Tau) - H'Mong 소수민족의 마을



따수아(Ta Xua)산 정상



목자우(Moc Chau) 차 언덕

➤ 인센티브 지원 정책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선라성은 사회경제적으로 특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가장 큰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모든지역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미등록분야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3년 12월말까지 선라성 대상 총 외국인 투자는 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53.6백만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Blackstone Minerals Limited(호주)는 푸옌(Phu Yen)현에 '첨단 기술 니켈 심층 가공 공장'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토지 사용 면적은 128.55ha이며 총 투자액은 약 6.41억 달러임.

➤ 선라성 내 FDI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 (\$)
1	Niken Ban Phuc 채광 프로젝트	호주	136백만
2	반호(Van Ho) 첨단 농산물 보존 및 가공 공장	한국	6백만
3	Satoen Vietnam Co., Ltd의 차 공장 프로젝트	일본	4백만
4	Takii Seed Vietnam Co.,Ltd	일본	1.8백만
5	수출용 차 재배 및 가공 프로젝트	대만	1.8백만
6	베트남-한국 고품질 과수 및 임업식물 생산센터 합작투자 프로젝트	한국	1.5백만
7	CJ CGV Vietnam Co., Ltd - 선라성 지점	한국	1.01백만

➤ 한국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한국 투자는 3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총 8.51백만 달러가 투자등록되어 있음. 선라성에 투자한 5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2위 규모임.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정보	투자자/개발사
마이선 (Mai Son) 공단	2019	150ha (단계1:63.7ha)	• 입주율: 43% • 단계 1 임대된 토지 면적: 약 21ha • 공유 인프라 임대료: 약0.25USD/m²/년 • 투자유치분야: 건설자재 생산, 에너지, 농림수산물 가공, 음식, 약초, 소비재, 첨단 기술 등 • 위치: 마이선(Mai Son) 현 므엥번(Muong Bon) 마을, 6번 국도에서 약 6km	선라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https://bqlkcن.sonla.gov.vn
반호 (Van Ho) 공단	-	216.6ha	• 현재 인프라 투자 유치 중 • 위치: 반호(Van Ho) 현 반호 마을, 선라 시내 중심에서 약 120km, 하노이 시내에서 약 182km, 6번 국도에서 약 3.2km, Hoa Binh - Moc Chau 고속도로에서 약 12km	모색 중

투자 유망분야

선라성은 다음과 같이 성의 강점이 있는 분야와 개발 여지가 많은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선 프로젝트: 반호(Van Ho)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및 개발
- 전자 장비 생산 및 제조
- 제약 원료
- 농림업 제품을 첨단 기술로 수출하기 위한 가공
- 물류 서비스 등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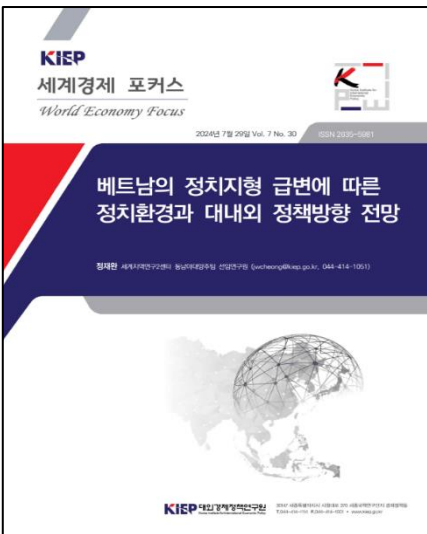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선라성 투자, 무역, 관광 진흥 센터	Ms. Le Thi Hong Anh 센터장	- Tel: +84-212-385-6686 - Email: xtdtmdlsl@gmail.com - Website: ipc.sonla.gov.vn
선라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Mr. Nguyen Duc Dung 부위원장	- Tel: +84-212-385-1774 - Email: bqlcknsonla@gmail.com - Website: bqlkcنsonla.gov.vn



VIETNAM CEO INSIGHT 2024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서론
2. 2024 상반기 베트남 경제 개요
3. 베트남 경제 변수



베트남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최근의 정치지형 급변 과정과 배경
2. 정치환경 변화와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3. 시사점



2024 베트남 콘텐츠산업 변화 동향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베트남 콘텐츠산업의 밑그림 및 주요 변화 동향
2. 2024 베트남 콘텐츠산업의 발전 전망
3. 베트남 시장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을 위한 유의사항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7. 20 기준 누계		2024. 1. 1 ~ 7.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013	87,615.37	219	464.3	1,580.19
싱가포르	3,742	80,736.51	256	4,548.44	6,518.87
일 본	5,381	76,358.74	133	991.45	1,913.92
대 만	3,197	40,314.97	103	588.44	1,184.71
홍 콩	2,639	36,674.25	191	1,306.47	2,193.56
중 국	4,754	28,551.16	540	1,220.78	1,648.01
버진아일랜드(영)	917	23,417.55	6	98.18	315.89
네덜란드	444	14,596.83	12	54.23	138.59
태국	754	14,158.58	21	48.21	100.07
말레이시아	746	13,023.97	22	48.34	62.79
미국	1,391	11,942.66	59	71	116.23
기 타	6,799	59,640.81	254	1,324.05	2,228.22
전체 합계	40,777	487,031.40	1,816	10,763.88	18,001.0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7. 20 기준 누계		2024. 1. 1 ~ 7.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458	296,100.53	637	7,883.53	12,654.24
2	부동산 경영	1,171	70,590.82	42	1,940.62	2,871.37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6	40,783.91	2	118	195.54
4	호텔, 외식서비스	1,004	15,415.21	23	15.84	75.85
5	건설	7,611	11,595.66	635	412.74	740.49
6	도소매, 유지보수	1,836	10,976.40	27	10.44	58.7
7	물류운수	1,151	6,464.29	57	237.42	483.42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662	5,555.38	193	57.8	490.6
9	정보통신	3,039	5,156.25	125	24.36	97.2
10	채광	106	4,889.17	-	-	0.77
11	교육, 양성	701	4,635.42	22	18.62	29.61
12	농,임,수산	536	3,867.83	4	18.07	54.73
13	예술 오락	148	3,231.28	5	6.44	7.03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049.18	1	0.02	-105.5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764.64	-	-	19.17
16	행정, 지원 서비스	656	1,086.14	37	17.48	64.32
17	금융, 은행, 보험	98	930.45	3	1.99	102.53
18	기타 서비스	153	927.79	3	0.5	161.0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 계	40,777	487,031.40	1,816	10,763.88	18,001.0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1	2022	2023	2024.7
수 출	3,363.10	3,713.00	3,546	2,274.9(+16.0)
수 입	3,322.30	3,589.00	3,263	2,129.7(+18.5)
무역수지	40.80	124.00	280.00	145.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	57,994	52,379	32,580(+12.7)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	55,536	57,336	39,592(+29.1)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	45,751	43,128	27,996(+20.5)
섬유/직물제품	32,753	37,566	33,329	20,274(+6.3)
신발류	17,751	23,895	20,237	12,861(+10.5)
원목 및 목제품	14,809	16,011	13,467	8,891(+23.5)
철강제품	11,795	7,993	3,973	2,512(+6.6)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	11,988	14,157	8,607(+4.9)
수산물	8,886	10,923	8,971	5,326(+8.0)
원사(Yarn)	5,612	4,713	4,355	2,535(+3.5)
기 타	87,379	98,934	103,339	66,312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227,486(+16.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7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	81,884	87,965	59,425(+29.4)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	45,192	41,579	26,853(+16.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	21,126	8,749	5,414(+26.3)
의류(원단)	14,324	14,706	13,016	8,444(+14.2)
플라스틱 원료	11,685	12,387	9,755	6,457(+18.5)
각종 철강	11,523	11,920	10,425	6,887(+22.9)
기타 비금속	8,611	9,253	7,626	5,425(+25.9)
플라스틱 제품	7,959	8,119	7,508	4,917(+17.9)
화학제품	7,627	9,144	7,605	4,405(+3.0)
화학물질	7,735	8,747	7,726	4,891(+11.4)
기 타	119,600	136,423	124,419	79,847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212,965(+18.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7
1	미 국	77,077	96,293	109,388	97,020	66,404
2	중 국	48,905	56,009	57,702	61,207	32,568
3	한 국	19,107	21,945	24,293	23,498	14,476
4	일 본	19,284	20,128	24,232	23,314	13,727
5	홍 콩	10,437	11,996	10,936	9,631	6,980
6	네덜란드	6,999	7,686	10,430	10,241	7,262
7	독 일	6,644	7,286	8,968	7,400	4,581
8	인 도	5,235	6,259	7,961	8,498	5,372
9	태 국	4,917	6,161	7,476	7,192	4,600
10	영 국	4,955	5,765	6,065	6,345	4,313
	기 타	79,094	96,782	103,853	100,325	67,203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	227,48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7
1	중 국	84,187	109,874	117,866	110,644	79,615
2	한 국	46,895	56,155	62,088	52,511	31,872
3	대 만	16,701	20,772	22,631	18,421	12,369
4	일 본	20,341	22,648	23,373	21,638	12,522
5	미 국	13,713	15,270	14,470	13,822	8,455
6	태 국	10,968	12,564	14,092	11,797	6,749
7	오스트레일리아	4,677	7,946	10,144	8,533	4,470
8	말레이시아	6,575	8,148	9,124	7,809	5,462
9	인도네시아	5,382	7,587	9,641	8,728	5,674
10	인 도	4,435	6,950	7,086	5,864	3,304
	기 타	48,826	64,320	68,386	66,606	56,994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	212,96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7
수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32,992(+12.8)
수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16,074(+7.8)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16,918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7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9,663(+46.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6,179(+1.1)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1,711(-19.5)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1,456(+19.0)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1,374(+25.3)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1,071(+1.5)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641(+10.9)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487(-4.9)
기타기계류	669(-14.5)	957(43.0)	793(-17.1)	801(+1.0)	431(-12.6)
계측제어분석기	686(-18.6)	717(4.5)	815(13.6)	734(-9.9)	368(-23.7)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9,611
합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32,992(+12.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7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2,894(+6.7)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1,866(-1.8)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1,367(+2.6)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1,468(+53.8)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957(+21.3)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711(-6.0)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397(-1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349(-12.6)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338(+14.1)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236(+0.1)
기타	6,474	8,161	9,103	8,718	5,491
합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16,074(+7.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3~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5.05	5.05	1.1	3.8	1.9	5.6
		2023년 4Q	%	6.72	5.04	2.2	3.4	1.7	5.6
		2024년 1Q	%	5.66	5.11	2.7	3.9	1.5	1.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1.5	N/A	125.9	127.3	97.5	N/A
		2024년 5월	-	8.9	N/A	115.4	128.1	98.43	△1.7
		2024년 6월	-	10.9	N/A	117.4	134.3	96.08	5.9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5월	-	50.3	52.1	50.6	50.2	50.3	51.9
		2024년 6월	-	54.7	50.7	50.4	49.9	51.7	51.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56.7	N/A
		2024년 5월	-	N/A	125.2	116.3	N/A	60.5	N/A
		2024년 6월	-	N/A	123.3	113.3	N/A	58.9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4.78	4.5
		2024년 5월	-	9.5	2.1	N/A	N/A	N/A	2
		2024년 6월	-	9.1	2.7	N/A	N/A	N/A	1.8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25	N/A	4.8	N/A	N/A	7.9
		2024년 5월	%	4.44	2.84	3.1	2	N/A	0.3
		2024년 6월	%	4.34	2.51	2.9	2	N/A	3.7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10.9	N/A	N/A
		2024년 5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6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28	N/A	1.9*	3.4	0.98	3.1
		2023년 4Q	%	2.26	N/A	2	3.3	0.81	3.5
		2024년 1Q	%	2.24	N/A	2	3.3	1.01	4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0.82	△3.4
		2024년 5월	%	15.8	2.86	12	7.3	6.9	△3.1
		2024년 6월	%	10.5	1.17	△2.0	1.7	△0.3	△17.3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23	4.1
		2024년 5월	%	29.9	-8.83	16	13.8	△1.56	△0.03
		2024년 6월	%	13.1	7.58	4.7	17.8	0.32	△7.5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푸토성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해결 협조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 간담회 Phú Thọ

2024년 9월 25일(수)
푸토성 인민위원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BUSINESS NETWORKING

한국-대만투자진출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수요 조사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과 대만 우수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우리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조사기관)

KOTRA(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조사목적)

베트남 진출 한국-대만 투자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

(조사내용)

기업 기본정보, 베트남기업과의 합작여부, 주요 생산제품, 업종, 대만기업과의 협력희망 분야, 협력희망 형태, 협력 관심/희망기업 등

(조사대상/업종)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한국 투자진출기업 중 대만기업과의 협력에 관심 있으신 기업
*2023년은 에너지/인프라/건설 부문 한-일 투자진출기업 네트워킹 사업을 개최한바 있음

- 전기·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가전 등)
- 제조(기계, 부품, 소재, 장비 등)
- IT
- 기타

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s://forms.gle/y7K4LhQaQpxH4AtU9>

(문의처)

KOTRA(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E.soorin@kotra.or.kr T.024-3946-0511[ext.531]

글로벌 제조수출 허브

2024 베트남 진출전략 세미나

일시 / 2024. 9. 10. (화) 13:00 ~ 17:00

장소 / KOTRA B1F 국제회의장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KOTRA, 베트남 무역진흥청



KOTRA는 베트남 무역진흥청과 함께 다가오는 9월 10일(화) '글로벌 제조수출 허브, 베트남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진출국이자 공급망 협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투자 진출 정보 제공을 위해 베트남 주요 지방성과 산업단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초청해 진출환경을 소개하고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인분들께서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시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대상

베트남 투자진출·투자확대·P턴기업 등 약 150개사

신청방법

우측 QR코드 스캔 혹은 <https://moaform.com/q/wLQyhS> 접속

참가 신청
바로가기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50	오프닝 세션	
13:50-14:05	베트남 투자 및 교역 협력 전망과 기회	베트남 무역진흥청
14:05-14:30	글로벌 공급망 변화, 베트남 진출 환경 및 투자 기회	KOTRA 하노이무역관
14:30-14:40	KOTRA 해외진출지원사업 및 베트남 M&A 매물 소개	KOTRA 투자M&A팀
14:40-15:00	베트남 지방성별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베트남 지방성
15:00-15:30	베트남 주요 산업단지 소개	LH 및 베트남 산업단지
15:30-17:00	비즈니스 파트너링	1:1 상담회, 네트워킹 등

문의처

Tel. 02-3460-3247

E-mail. jbpark@kotra.or.kr

Tel. 02-3460-7359

E-mail. dus1234@kotra.or.kr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저작권자©KOTRA >